

위대한 선군령장 따라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을 맞으며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는 조선의 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혁명부족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격정에 온 나라가 끓어번지던 잊지 못할 역사의 그 날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하지만 그 5년간에 안고있는 역사적의미는 불리치단위로만은 결코 배아될 수 없다. 한없이 확대된 우리의 존엄이, 더욱 막강해진 조국의 힘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여, 잠시 숨쉬던 마음으로 돌이켜보시라.

그 얼마나 자랑하고 눈부신 승리의 기념비들과 격동적인 현상이 이 땅에 펼쳐졌는가.

당의 명도에 도전하여나선 현대판 종파일당이 단호히 적발속결로써 더욱 강해진 우리 당의 통일단결, 만민사대의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며 조국방위투쟁에서 수훈을 입어선 창조물들, 국제체육무대에서 주체조선의 이름을 떨친 승전소식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세치려는 그 어떤 권위자도 단념에 겨우머드될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 지구상 어디에 있는 약의 소굴이건 마음만

먹으면 손쉬운 새가루로 만들어놓을 수 있게 다종화, 다양화된 우리의 강력한 핵동력수단들...

이렇듯 우리 조국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정도로 높이 치솟았다.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룩된 승리와 고지적인 현실이어서 우리들 자체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 모든 사변들을 하나로 관통시켜 세계에 베풀리는 역사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현실같은 의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월의 뜻깊은 오늘 조국의 하늘가에 세차게 나뭇가지의 자주리와 새소리도 지닐수 없는 최고사령관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인민들이 심장으로 머지 않는 격정의 열매이다.

군력이야 국력이다. 군력이 약하면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

하는 사업을 일관하여 틀어쥐고나가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바라보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군력강화가 아니다.

최세의 천출명장들 혁명의 전투에 높아 모신 때만이 군력이 천배로 강화된다것은 우리의 선군혁명력사가 보여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귀중한 열매를 더욱더 과무로 질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현실같은 의지입니다.》

천출명장의 위인상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12월의 언덕에서 우리가 걸어온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나날을 소중한 인아불수록 인민군대가 지닌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변불욕의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 걱정을 금할수 없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김이셨고 장군님께서 계시었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다. ...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이다.

이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100% 계승해나가도록 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의 행한 명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전군을 집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정격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선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진송명도사,

선군명도사가 깃들여있는 수많은 역사의 고장들과 단원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대원수님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을 어찌 다 전할수 있소랴.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은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할 업적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들에게 값은 얼마도 행복을 안겨주고 그것을 노력같이 지켜주시는데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일찍이 총애와 남다른 인연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 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으로써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안겨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역세기 키우기 위해 해쳐가시는

선군정령의 김우에 적정없이 만아 안수 없고 눈물없는 새김수 없는 감동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무수히 새겨졌는가.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군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오야 한다. 군인들이 있어 최고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면서 작은 목숨에 큰 시어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쳐시고 최대일점지역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적어대결의 최전방인 관문점초소에서 나가시며 관문점은 오늘 자신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며 초소의 군인들을 철수시켜 사령의 기념사지도 찍으시고 적진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백m밖에 되지 않는 오성신의 까칠봉초소에 오르시어는 맹사들을 한눈에 안으시며 동무들의 뒤통수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고,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힘있게 당부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모습에서 총애의 귀중함을 다시금 뼈에 새기며 백두산총애를 더욱 역세기 들어잡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이다.

찾으시는 인민군대마다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떨친 선군의지가 담긴 기린총과 자동보총, 방인경을 안겨주시었고 백두의 혼연열풍이 나뒀지는 혼연열풍에서 군인들의 총화전술과 최력타격훈련을 지도해 주시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술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승리 대적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원만한 무전적합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떨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나날이 역세어지는 무적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과 암살책동으로 정세가 아무리 긴박해도 이 땅에는 창조와 건설의 노래소리, 인민들의 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져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온 과정을 통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더욱 훌륭해진 면모에 대해 긍지높이 자부하게 되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의 손길아래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가장 힘있는 창조자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자부심을 느끼고있다.

지난 9월 우리 조국의 북면 두만강연안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들

적되었을 때 가장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닦아내신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물결대인 인민군대가 만나나선 하나의 사상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도 주도적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명도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인민군대를 주체적으로 내세워 이 땅에 사회주의혁명강국을 기어올리며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날래야 이 땅에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선군사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김일생동태하 교육자살법집, 마식령스카방, 미림대학부락부, 송도원주국제소년단영양소, 온화과학자거리, 미려과학자거리, 푸리기술성당, 옥류아동병원...

우주적으로 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 선군정령에서 낳고 받은 맞고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고 있어 우리 군인들이 흥민 고지한 피와 땀이 소중히 스며있으며 선군사대의 고상한 사상강령인 혁명적대인정성이 백막지고있고 생각할 때 군력강화가 가져다준 인민의 행복과 기쁨, 기적과 번혁의 폭과 깊이는 과연 얼마나 자랑할만한 것인가.

우리 조국은 이렇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서 자라난 인민군장병들의 선도적역할에 의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일대백룡강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북풍노도되고있다.

역사적적침은 언제나 몇백마디의 말보다 생동하고 확고한 믿음은 주는 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부족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기에 우리 조국의 군력이 그토록 강해지고 인민의 행복도 끝없이 펼쳐나갔다는것이 오늘 우리 천만민군이 더욱 깊이 새기는 귀중한 진리이다.

하기에 뜻깊은 역사의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천만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내 조국이 무궁번영하고 이 조선의 힘이 역세어진다라는 진정의 목소리를 한껏 터치는 것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는 끝없이 변형하는 이 조선의 무궁강대한 힘이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며 백전백승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망한 모습에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있다.

지난 9월 우리 조국의 북면 두만강연안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들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훈 례 찍음

최대열점지역에서 진행된 화력복무훈련

주제 101(2012)년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돌아 오사리고있는 백령도가 지척인 어느 한 해안포진지에 오시었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로진지에 모신 해안포병들의 영광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순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화력복무훈련을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아닌가.

적아가 날카롭게 대치하

고있는 지역, 우리 포가 위장을 벗기면 적들도 따라하고 우리 포진들을 돌리면 적들도 반응하는 지역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화력복무훈련이 진행되었다.

군인들이 화력복무훈련을 기뻐있게 행한다고 치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선군명장의 드넓은 배양과 담력을 뜨겁게 느낄만 군인들이었기에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영광의 심실과 용기가 넘쳤다.

얼마전 참관로정을 따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유재하면서 우리가 느낀바는 실로 깊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혁명선열들과 로병들의 영웅적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견결히 이어나가는 것은 반체반미대결전을 총력산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전략적방침입니다.》

대형전정화일에 선 우리들의 눈앞에서 수심전전의 대진태양전투가 방방하게 재현되고있었다. 대전태양전투의 시작과 끝을 이르는 전과정이 넓은 폭으로 실감있게 형성된 전쟁화.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귀부리를 스치는 총탄을 맞았나 대진시각을 떨리는 강성세계에 잠겨들었다. 영웅무쌍한 인민군

40리, 내리면서 40리.

조용히 불리만 보아도 조국수호의 상징, 선군혁명명도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철명의 아흔아홉구멍이 저절로 떠오른다.

그렇듯수 한평생 조국과 인민의 율명을 지켜주시던 선군혁명명도의 김우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선군혁명명도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연한 의상이 뜻 있을 죄역속에 안겨온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질수 없는 습니다.》

주제 101(2012)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명을 넘으시던 조선노동당의 최진영에 있는 인민군대의 한 지휘부를 찾으신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접나온 부대원들에게 힘있게

대의 포위망에 들어 독안에 든 쥐모양이 된 미세철학군의 물결이 눈앞에 보이는 해방된 남녘인민들과 승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다. ...

세계전쟁역사에 미칠듯 그랄 뜻 호외의 후려갈진 전법과 전술이 있었는가.

집수력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의 위대성이 더욱더 인게우고 철학사 미제에게 패배를 안긴 역사의 진실이 명백해졌다.

위세깊은 《승리》상알에서 끝났지만 끝없이 계속되고있었다. 하나의 대과과정을 마치는 것과 같은 때움의 길이어가.

《참관로정이 너무나 짧은것만 같아 무척 아쉬워하는것은 이곳을 참관하는 두주나의 심정입니다.》

안내를 맡았던 최승연연구원 내성관원의 말이 사색의 물결을 일으켜주었다.

보통강기사의 새 리전에 높이 솟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전쟁의 3년간만이 아니라 선군혁명승리의 장구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새겨주는 우리 조국의 자랑높은 세모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새로 일떠서던 날이 어려울은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던 해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정승군관들을 불러모으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반미교양의 중심지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주 제국주의를 파멸시킨 조선인민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시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양적정면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고 가슴아프게 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때로부터 한해이기에 《오신지》극장이 아니라 주체전법의 로정을 율리는 극장, 사상의 로

성을 율리는 극장과도 같이 황룡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오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던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승군관들을 불러모으시던 해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정승군관들을 불러모으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반미교양의 중심지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주 제국주의를 파멸시킨 조선인민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시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양적정면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고 가슴아프게 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때로부터 한해이기에 《오신지》극장이 아니라 주체전법의 로정을 율리는 극장, 사상의 로

백두산훈련열풍을 일으키시던 날에

뜻깊은 올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정일영웅유적기념터에 불이여 야간승격전투비행훈련명령을 하달하시고 현지에서 전투능력을 직접 판정검열하시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순차적으로 목표상공에 도달한 추격자들은 정확히 목표물을 투하하였다. 목표물 된 실에서는 화염이 충천하였으며 우리같은 목숨은 전신을 전갈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쾌한 광풍이 표시되는 영상로시장치를 보시면서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두레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인민군,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모속 지도하시었다.

사격경기는 군사위원회와 정치일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권총과 자동소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맞힌 걸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사격경기에서 지휘성원들은 형식이 엄격한 사격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명사수 율명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일기, 주야, 계절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물을 단박에 어길것을 소명하는 때 백백백의 명사수들로 귀우자면 지휘성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러시면서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싸움은 언제 한도와 확고하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최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로 문흔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전투비행사들이 강도높은 비행훈련을 생활화해나가기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밖으로 그이의 비범한 손길과 우리의 전투비행사들은 언제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백승의 비행만을 아로새겨갈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들로 역세계 자라나고있었다.

본사기자

수필 혁명 대학

대의 포위망에 들어 독안에 든 쥐모양이 된 미세철학군의 물결이 눈앞에 보이는 해방된 남녘인민들과 승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다. ...

세계전쟁역사에 미칠듯 그랄 뜻 호외의 후려갈진 전법과 전술이 있었는가.

집수력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의 위대성이 더욱더 인게우고 철학사 미제에게 패배를 안긴 역사의 진실이 명백해졌다.

위세깊은 《승리》상알에서 끝났지만 끝없이 계속되고있었다. 하나의 대과과정을 마치는 것과 같은 때움의 길이어가.

《참관로정이 너무나 짧은것만 같아 무척 아쉬워하는것은 이곳을 참관하는 두주나의 심정입니다.》

안내를 맡았던 최승연연구원 내성관원의 말이 사색의 물결을 일으켜주었다.

군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철경

넘어오르러 생각이 많았다고, 마치 어버이장군님께서 내아가는 이 길을 함께 걸으시던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언제나 동무들에게 와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웃 부대에 오시면서 어버이장군님과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며 높고 힘찬 철명을 넘으신 우리 장군님이다.

하기에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부대에 있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색내용들을 배웠던 이 다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회는 깊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대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철명을 부여 18차에나 넘으시었다고, 장군님께서서는 철명을 비를 맞으면서도 넘으시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으시었고 새벽에도 넘으시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순간 부대일군들의 눈물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무려 18차,

생각만 해도 무섭히 대할수 없는 수자였다.

이제는 철명열풍을 받으며 아 하였고 간절히 야위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철명열풍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며 위험한 철명을 넘고 또 넘으신 우리 장군님이 있었는가.

일출을 하는 화폭들이 되게저저 가슴들덕이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무들은 왜 장군님께서 철명을 많이 넘으시었다가 하는것을 특별히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사생정간의 의지를 지니시고 해쳐가신 그 철명, 이것이 어찌 전선동무의 인민군장병들에게만 하신 위대한 선군명령의 절절한 부탁이라고 하라.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취임없는 전선길을 이어나가고 계신다.

우리 장군님께서 들을 돌리고

강화해주시던 인민군부대들을 찾았을때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숭정과 의리의 세계를 심어주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쳐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언제나 잊지 말고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고,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조국보위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활거행에서 인민군대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고라 이 이끌어주고 계신다.

모든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힘두 팔기 위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한평생이 어떠한 혁명의 총애를 역세계에 들어잡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 고결한 숭정과 의리의 세계이다.

본사기자 림 정 훈

북부외해북구의 나날에 발취된 사회주의대풍모

송도원의 새 전설과 더불어 꽃피어난 한식솔이야기

전화위목!
 류예없는 대제년을 겪은 북부외해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주의모습이 울려 퍼졌다. 인내와 인내의 인민사랑의 새 전설과 더불어 참으로 많은 미담들을 낳았다. 사랑과 인성으로 엮여진 그 미담들속에는 전화위목의 첫 주인공들이었다. 북부외해의 아이들과 이어진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도 있었다.

위대 한 명 도 자 김일성동지를 기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우리 인민과 같이 혁명적이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를 지니고 살며 투쟁하는 훌륭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디다.》

어미당의 사랑속에 지난 10월 21일부터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2차에 걸쳐 상성에 부임하는 행렬이 아영생활을 누린 함북도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이 있지 못하는 한식솔을 위한 이야기, 그것은 자본주의가 도저히 흉내조차 낼수 없는 사회주의정, 사회주의의 아름다움은 영성이었다.

아이들을 불러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송도원아영소에서 분개된 장정식교원들 비호한 김일성총화대학 재경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격정은 유별했다. 방중양위원회 호소문을 담은 것은 그날부터 매일, 때 순간 북부외해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쓰며 피해지역인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성의를 다하던 그들의 가까이에서 바로 북부외해지역이 도착했던것이 다. 평소에도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늘 먼저 몸을 내대던 하는 인성미와 헌신성으로 하여 남다른 존경을 받는 당세포원정인인민들의 마음을 세차게 달아주었다. 송도원에 온 우리 아이들에게 한시비해 따뜻한 정을 안겨주고싶은 그의 마음속에 함께 온 교원과 학생들의 마음도 뜨겁게 달아났다. 그들은 지상에서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랑과 애정을 안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았다. 아영생활이 아영소에 도착한 그 첫날밤에 밤에 찾아 들었던 김일성총화대학 재경대학 교원들과 학생들, 그들은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찾아온 첫 열흘을 보냈다.

그날 아영소를 찾은 열흘을 그들만이 아니었다. 단사를 거쳐놓고 송도원에서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맞이할 인민들, 강철도당의 인민들은 아영소에 있는 온 아이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때 호신하다 분을 다룬다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들의 마음속상처를 더 가슴아파하고 전만자루 몸을 틀어 그 상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사랑을 어린 헌신성의 마음에 두 심어주고싶었다. 이렇게 되어 헌신성과 그의 부모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게 되었고 헌신성은 정경애하는 원수님께 품소 다녀가신 아영소의 어느 한 방에서 북부외해의 소년단원들과 기쁜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신성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그 애들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한결 그늘도 없었다. 행복을 겨우 밝게 도는 그 애들을 소박한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사진도 함께 찍은 그날 헌신성은 북부외해소년단원들에게만 전지를 읽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시와 사랑을 목숨까지 구원하고 여기 아영소에 오지 못한 선생님들과 형님, 누나들의 마음도 함께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의 손길로 온 성직중에 새겨졌다는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송도원에서 품과 같은 아영생활을 마친 우리 원수님의 사랑들의 모습이 선물과 특별히 온 나라를 울리던 그 시와 인민은 또다시 격정의 열파에 휩싸였다.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그들이 했던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영소에서 아영소들을 불러온 남부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성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들의 마음속상처를 더 가슴아파하고 전만자루 몸을 틀어 그 상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사랑을 어린 헌신성의 마음에 두 심어주고싶었다. 이렇게 되어 헌신성과 그의 부모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게 되었고 헌신성은 정경애하는 원수님께 품소 다녀가신 아영소의 어느 한 방에서 북부외해의 소년단원들과 기쁜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신성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그 애들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한결 그늘도 없었다. 행복을 겨우 밝게 도는 그 애들을 소박한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사진도 함께 찍은 그날 헌신성은 북부외해소년단원들에게만 전지를 읽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시와 사랑을 목숨까지 구원하고 여기 아영소에 오지 못한 선생님들과 형님, 누나들의 마음도 함께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의 손길로 온 성직중에 새겨졌다는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송도원에서 품과 같은 아영생활을 마친 우리 원수님의 사랑들의 모습이 선물과 특별히 온 나라를 울리던 그 시와 인민은 또다시 격정의 열파에 휩싸였다.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그들이 했던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영소에서 아영소들을 불러온 남부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성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들의 마음속상처를 더 가슴아파하고 전만자루 몸을 틀어 그 상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사랑을 어린 헌신성의 마음에 두 심어주고싶었다. 이렇게 되어 헌신성과 그의 부모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게 되었고 헌신성은 정경애하는 원수님께 품소 다녀가신 아영소의 어느 한 방에서 북부외해의 소년단원들과 기쁜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신성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그 애들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한결 그늘도 없었다. 행복을 겨우 밝게 도는 그 애들을 소박한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사진도 함께 찍은 그날 헌신성은 북부외해소년단원들에게만 전지를 읽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시와 사랑을 목숨까지 구원하고 여기 아영소에 오지 못한 선생님들과 형님, 누나들의 마음도 함께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의 손길로 온 성직중에 새겨졌다는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송도원에서 품과 같은 아영생활을 마친 우리 원수님의 사랑들의 모습이 선물과 특별히 온 나라를 울리던 그 시와 인민은 또다시 격정의 열파에 휩싸였다.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그들이 했던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영소에서 아영소들을 불러온 남부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성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모든 힘을 함복도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의 승리를 위하여!
 온 나라가 전화위목의 기적적 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섰다. 사생결단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북부외해지역을 향해 모든것이 최대 규범으로 달려갔다. 그때 유복 북부외해를 떠나는 행렬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송도원 아영생활이 오온 아이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로 피해지역

아이들을 불러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송도원아영소에서 분개된 장정식교원들 비호한 김일성총화대학 재경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격정은 유별했다. 방중양위원회 호소문을 담은 것은 그날부터 매일, 때 순간 북부외해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쓰며 피해지역인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성의를 다하던 그들의 가까이에서 바로 북부외해지역이 도착했던것이 다. 평소에도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늘 먼저 몸을 내대던 하는 인성미와 헌신성으로 하여 남다른 존경을 받는 당세포원정인인민들의 마음을 세차게 달아주었다. 송도원에 온 우리 아이들에게 한시비해 따뜻한 정을 안겨주고싶은 그의 마음속에 함께 온 교원과 학생들의 마음도 뜨겁게 달아났다. 그들은 지상에서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랑과 애정을 안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았다. 아영생활이 아영소에 도착한 그 첫날밤에 밤에 찾아 들었던 김일성총화대학 재경대학 교원들과 학생들, 그들은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찾아온 첫 열흘을 보냈다.

그날 아영소를 찾은 열흘을 그들만이 아니었다. 단사를 거쳐놓고 송도원에서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맞이할 인민들, 강철도당의 인민들은 아영소에 있는 온 아이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때 호신하다 분을 다룬다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들의 마음속상처를 더 가슴아파하고 전만자루 몸을 틀어 그 상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사랑을 어린 헌신성의 마음에 두 심어주고싶었다. 이렇게 되어 헌신성과 그의 부모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게 되었고 헌신성은 정경애하는 원수님께 품소 다녀가신 아영소의 어느 한 방에서 북부외해의 소년단원들과 기쁜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신성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그 애들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한결 그늘도 없었다. 행복을 겨우 밝게 도는 그 애들을 소박한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사진도 함께 찍은 그날 헌신성은 북부외해소년단원들에게만 전지를 읽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시와 사랑을 목숨까지 구원하고 여기 아영소에 오지 못한 선생님들과 형님, 누나들의 마음도 함께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의 손길로 온 성직중에 새겨졌다는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송도원에서 품과 같은 아영생활을 마친 우리 원수님의 사랑들의 모습이 선물과 특별히 온 나라를 울리던 그 시와 인민은 또다시 격정의 열파에 휩싸였다.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그들이 했던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영소에서 아영소들을 불러온 남부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성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들의 마음속상처를 더 가슴아파하고 전만자루 몸을 틀어 그 상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사랑을 어린 헌신성의 마음에 두 심어주고싶었다. 이렇게 되어 헌신성과 그의 부모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게 되었고 헌신성은 정경애하는 원수님께 품소 다녀가신 아영소의 어느 한 방에서 북부외해의 소년단원들과 기쁜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신성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그 애들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한결 그늘도 없었다. 행복을 겨우 밝게 도는 그 애들을 소박한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사진도 함께 찍은 그날 헌신성은 북부외해소년단원들에게만 전지를 읽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시와 사랑을 목숨까지 구원하고 여기 아영소에 오지 못한 선생님들과 형님, 누나들의 마음도 함께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의 손길로 온 성직중에 새겨졌다는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송도원에서 품과 같은 아영생활을 마친 우리 원수님의 사랑들의 모습이 선물과 특별히 온 나라를 울리던 그 시와 인민은 또다시 격정의 열파에 휩싸였다.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그들이 했던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영소에서 아영소들을 불러온 남부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성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들의 마음속상처를 더 가슴아파하고 전만자루 몸을 틀어 그 상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사랑을 어린 헌신성의 마음에 두 심어주고싶었다. 이렇게 되어 헌신성과 그의 부모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게 되었고 헌신성은 정경애하는 원수님께 품소 다녀가신 아영소의 어느 한 방에서 북부외해의 소년단원들과 기쁜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신성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그 애들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한결 그늘도 없었다. 행복을 겨우 밝게 도는 그 애들을 소박한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사진도 함께 찍은 그날 헌신성은 북부외해소년단원들에게만 전지를 읽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시와 사랑을 목숨까지 구원하고 여기 아영소에 오지 못한 선생님들과 형님, 누나들의 마음도 함께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의 손길로 온 성직중에 새겨졌다는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송도원에서 품과 같은 아영생활을 마친 우리 원수님의 사랑들의 모습이 선물과 특별히 온 나라를 울리던 그 시와 인민은 또다시 격정의 열파에 휩싸였다. 한순간, 한가닥이라도 그들이 했던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영소에서 아영소들을 불러온 남부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어느날 헌신성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영웅하게 말했다.

《북부외해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해영성성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은 멀지 않지만 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년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주106(2017)년 세민에 조주하여 29일 주조 세제보전기구, 세계식량계획, 유

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으셨으며 세계사

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인물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외의 마음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농근맹중앙 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9일 시흥구에서 정진행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중앙시당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 농근맹위원장, 농근맹교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9일 시흥구에서 정진행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중앙시당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 농근맹위원장, 농근맹교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9일 시흥구에서 정진행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중앙시당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 농근맹위원장, 농근맹교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9일 시흥구에서 정진행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중앙시당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 농근맹위원장, 농근맹교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9일 시흥구에서 정진행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중앙시당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 농근맹위원장, 농근맹교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9일 시흥구에서 정진행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중앙시당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 농근맹위원장, 농근맹교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 경축

우표 발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감회 높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 발행된 우표는 선군의 가치높이 우리 조국을 전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모신 5축을 경축하여 우표(개별우표 1종)를 발행하여 내놓았다. 혁명의 선상 백무신이 형상되어있고 평평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와 총대가 부각된 우표는 또 한반도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전제 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을 잘 보여주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경축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개별우표 1종)를 발행하여 내놓았다. 혁명의 선상 백무신이 형상되어있고 평평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와 총대가 부각된 우표는 또 한반도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전제 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을 잘 보여주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외국 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주조 무관단 만경대혁명학원 참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주조 무관단 29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주조 무관단 29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축을 조음하여 주조 무관단 29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69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0호

최우수제품들에 12월15일품질메달 수여

은 나라 인민들이 총정의 200 일년루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기세 드높이 계속혁신, 계속건설의 불길음 새겨져 지켜오고있는 속에 주제106(2016)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최우수제품들에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었다.

은 나라 인민들이 총정의 200 일년루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기세 드높이 계속혁신, 계속건설의 불길음 새겨져 지켜오고있는 속에 주제106(2016)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최우수제품들에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었다.

은 나라 인민들이 총정의 200 일년루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기세 드높이 계속혁신, 계속건설의 불길음 새겨져 지켜오고있는 속에 주제106(2016)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최우수제품들에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재일동포조국 방문단 도착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시흥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

반공화국대결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면서 동족대결을 추구한 박근혜정권의 범죄적행위는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였다.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지만 피폐당은 극단적인 대결정책과 북침전쟁소동을 일으키는것으로 겨레의 통일업

원을 잡질을 하였다. 북한관계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킨 박근혜정권의 그 지명되는 죄악을 다 열거하지면 끝이 없다. 피폐들이 의세와 아합하여 반공화국살상소동 등 죄를 해치려고 발광하였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붉은기

는 더욱 쫓겨나고있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었다. 남조선피폐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와 반동적인 대결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지나온 한해는 민족을 등지고 의세와 결탁한

한중도 못되는 반역부리가 제아무리 동족대결에 퍼를 붙고 남펴어도 정의와 진리의 힘을 이길수 없다는것, 민심의 요구를 짓밟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에집것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관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준

그러나 테로와 모략의 장본인으로서는 피폐당의 더러운 정체는 그 무엇으로도 가려줄수 없었다. 피폐들이 해에서 10여명의 우리 내성공영원들을 집 단유인합치한 사건과 지난 4월 민족의 명산 금강산지구를 넘어 도처히 무자한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때문이다.

통할수없는모략책동

최악의 북남관계파국을 몰아온 역적무리
올해에도 남조선피폐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화석처럼 굳어진 북남관계는 이제 벼두부러 그 무슨 《안보리세를 바탕으로 북의 태도변화를 유도》할것이라고 악정을 동구면서 우리의 한사코 대결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냈다. 그에 따라 피폐의교부와 국방부, 통일부까지도 합동업무보고를 하면서 《강력히 대북압박》을 통한 《핵문제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고사했다. 이것은 온 겨레가 바라는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 나라의 통일과 단합을 앞두고 한해동안 대결정책에 매달리며 반공화국살상소동에 광분했다는 선언이었다. 실제로 피폐당은 통치박산나는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꺼져가는 전멸을 부지해하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역사적인 조선통일당 제 7차대회의 높은 연선에 서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줄로 함께 일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절세위인의 예규의 호소는 온 겨레의 진족적인 지지와 열렬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전민족적범위에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남조선 각계에서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울려나왔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이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대결정책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다짜고짜 《위장평화론》을 앞세워 대외외교를 통해 사대주의적이며 반공화국살상소동에 광분했다는 선언이었다. 실제로 피폐당은 통치박산나는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꺼져가는 전멸을 부지해하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민심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우리의 자위적역적강화조직을 몰고놓아지는 한편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이러니, 《가장 효과적일것은 제재》라느니 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북비핵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것이라고 고사했다. 리성원은 대결지침자들의 반공화국도발행들은 북남관계를 사상 류태는 최악의 과구상태에 빠뜨렸다. 최근 남조선에서 리전 특대형정추추목사간을 통해 드러난바와 같이 박근혜당국이 그처럼 제 주축을 끌고오 여러 여러 계기마다 히스레리적인 대결정책을 부리면서 국제공조로 《북침권이 봉쇄》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핵문제의 근본적해결책은 통일》이라느니 하고 입에서 구멍이 나가는 지 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피폐당정권은 통치박산나는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꺼져가는 전멸을 부지해하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역대 피폐정권들이 동족대결을 염으로 삼지 않았던 자가 없다. 하지만 박근혜와 같이 그렇듯 미치광이가 되어 북남관계를 파헤친 역적은 없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리전 특대형정추추목사간을 통해 드러난바와 같이 박근혜당국이 그처럼 제 주축을 끌고오 여러 여러 계기마다 히스레리적인 대결정책을 부리면서 국제공조로 《북침권이 봉쇄》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핵문제의 근본적해결책은 통일》이라느니 하고 입에서 구멍이 나가는 지 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피폐당정권은 통치박산나는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꺼져가는 전멸을 부지해하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실제로 박근혜정권은 《테로대비》라는 무수없는 간판으로 내걸고 제 2의 《브린엄》으로 악명 높은 《테로대비정》을 앞세워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꺼져가는 전멸을 부지해하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실제로 박근혜정권은 《테로대비》라는 무수없는 간판으로 내걸고 제 2의 《브린엄》으로 악명 높은 《테로대비정》을 앞세워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꺼져가는 전멸을 부지해하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다들여간 북침전쟁의 도화선

정철조하무남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요란한 폭음이 그칠줄 없었다. 피폐군불합당들이 최전선지대에 자행되고, 명교, 장갑차 등 각종 장비들을 끌어내며 그 누구의 《화해도발상향》을 가상한 위협적인 군사적행위를 감행했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의 정, 해군참모총장 등 피폐군부주무리들은 백병도비 비롯한 시해형질적행위를 주된 계획으로 삼고있으며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답》이니 뭐니 하는 악담질로 앞날의 전쟁기운을 고취하였다. 이렇게 이해의 첫자락을 무뎠던 군사적도발도 뻔 피폐군부주무리들은 거의 매일이이 크고작은 전쟁발상난소동들을 연속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켰다.

올해에도 미국과 함께 《기 리종》, 《독수리 16》, 《유시 크리엄 가더인》 등의 간판들을 내건 요란소동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요란스럽게 감행하였다. 이 연습들은 철두철미 우리에게 대한 핵전쟁공격을 노린 예비전쟁이었고, 미국과 피폐군부주무리들은 북침전쟁각본인 《4D작전계획》과 우리의 전략적시찰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노린 《작전계획 5015》 등에 따라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사태를 폭발

입력내내 통치위기에 허덕인 박근혜정권은 어떠한 면에서든 남조선의 현실을 도모하는 해외행각에 나서고 있었다. 하지만 해외의 해외행각들은 치마바람을 일으켜 우리에게 반공화국살상소동을 일으키는 역적소동으로 일관되었다. 제 집안에서는 《식물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도고 그 주재에 밖에 나가 기만 하던 민정당 골리앗들 등을 휘둘러 약칭한 요란스럽게 구실없이 침략적인 3과군사동맹조작행위를 날로 강화된 사실이다. 최근 남조선피폐들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식 체결된데 이어 그 실행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대아시아 지배전략과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에 맞장구를 치는 남조선피폐들의 이런 행태는 우리를 겨냥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3과군사동맹과 북침전쟁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외세공조에 명줄을 건 천하의 매국노

남편 박근혜정권의 미국주재에 대한 음담반본의 표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박근혜정권은 그 무슨 《대북압박》이라는 간판을 들고 해외의 어지거리를 통분시주하여 국제무대까지 동족대결의 만무장으로 만들고 민족을 망신시키었다. 핵학외 의세와 지시력을 붙들고 우리의 자위적역적강화조직과 합법적인 우주개발사업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미친듯이 폄하했다. 《국제사회의 일치한 대응》과 《국제법제도의 엄격한 실행》을 청탁하는 망동을 부린것도 박근혜정권이 유엔에

남조선에서 리전 특대형정추추목사간을 통해 드러난바와 같이 박근혜당국이 그처럼 제 주축을 끌고오 여러 여러 계기마다 히스레리적인 대결정책을 부리면서 국제공조로 《북침권이 봉쇄》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핵문제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화선식선동활동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선동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많은 선동원들이 당초금선전일군의 전형이 되어 영광의 단상에 올랐다. 위대한 명도 자기정열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초금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사상사업방향을 받들어 당원들과 근로자층들에서 직접선동활동을 벌리는 전조변이전 정치활동가입니다.》 우리 당사상선전의 전조변이전 공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화선식선동활동으로 대중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을 아예 소개한다. 범공군 어유숙선동원동생장농산제 2작업반 2분조 선동원 리철수동생은 박력있는 선동활동으로 동생전대중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적극 불러일으키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다. 지난 10여년간 선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가 좌우명으로 소중히 간직하고있는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동은 한마디만 마다 다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강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하며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막바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지침으로 삼고 일해는 리철수동생였기에 그의 선동은 항상 대중의

심장을 울려잡곤 하였다. 중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나날에도 그러했다. 힘있는 구호들과 이동식전투수보안들을 포진해 전개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대중을 당의 사업전선, 당정책위전선에 호소하고 고무추동하는 그의 화선식선동활동은 온 본초에 알공산투쟁의 불꽃이 세차게 타고오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선동은 호소로만 끝나지 않았다. 자급비반출에서도, 농작물비배관리에서도, 가을걷이전투에서도 그의 위치는 언제나 태연하고 단호하였다. 지난 몇해동안 남조가 말거친 알공산제계를 넘겨 수평하게 된 심파의 비랑에는 바로 이선적의 모범이 온 본초원들을 이끌어 온 리철수동생의 헌신적인 노력이 뜨겁게 솟아있었다. 경양양 광동준비지장 제3작업반 선동원 석순옥동생의 지난 기간의 선동활동은 절세위인의 명도영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온 파격이라고 말할수 있다. 범도업적위원의 선동원답게 살며 일해나가는! 이것이 석순옥동생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은 신념이었다. 공장구내에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깊이 전하기 위한 모자이크형성작업과 현지지도포식비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몰두한 마음을 다 바쳐온 석순옥동생이었다. 자라도 미련한 수천전에 말하

에는 군사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악물생산체제를 무조건 수행하려는 내용의 선동활동들을 벌리면서 선함으로 온으로 피폐를 돌려 약초본체제를 진행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난날 잘못 살아온 한 종업원을 10여년간 교양하고 이끌어 주어 헌신자로 키운것을 비롯하여 리성원은 선동원들의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알해주는 대중적인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 오늘날 공장이 단합되고 화목한 집단으로 변해는 그의 불타는 헌신과 뜨거운 인정이 그 대로 비쳐있다. 하루에 우리 종업원들을 리성수동생이 이끌 선동원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며 마르고있는것이다. 이제 이틀뿐이다. 황해개발원합기업소 공무단 조직장 규격복자업반 선동원 윤은화, 라동철도공장 일용직작업반 선동원 조원철, 안주시 원봉공업전문원동생장 제2작업반 4분조 선동원 김학수, 태안군 동생전대중 장 1작업반 1분조 선동원 정순옥동생부들 비롯한 많은 선동원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투사로서 당초금선전일군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다. 당사상선전을 지켜서 미루운 전조변이전 선동원들이 있기에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군대로는 필사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한영철

3년분계화를 넘쳐 수행

신민주주의혁명산협동조합에서
중정의 70일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도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요의 앞장서서 물리군을 일으켰다. 따라배우기, 경협교관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종업원들은 매일생산계획을 250%이상 초과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종업원들은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면서 종업원정열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조항의 일꾼들은 종업원들과

조류독감의 위험성과 그 예방대책

하여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질병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닭, 비둘기, 오리 등을 기르거나 사육하는 분은 단류독감과 가금류에서 조류, 가금류가 사육되어지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야 한다. 비행장과 함안, 공영역 등에서 질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조류독감이 발생한 여러 나라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상을에 대한 검사, 검역사업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주변에 위치한 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계속 전파되고있는 조건에서 강력한 방역대책과 함께 질병을 막기 위한 투쟁을 전군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바란다. 보건성 국가위생검역원 부원장 홍순광



반역 《정권》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